

Aristoteles의 悲劇論에 있어서의 Katharsis에 대한 해석

趙 要 翰*

1. 藝術의 목적으로서의 “기쁨”
2. 悲劇의 기능으로서의 Katharsis
3. Katharsis의 두가지 맞선 해석
4. Katharsis의 美學的 해석

1. 예술의 목적으로서의 “기쁨”(to chairein)

Aristoteles는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시키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Aristoteles에게도 근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예술(fine art)와 기술(useful art)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나, Platon이 예술을 국가의 教育的인 효과에만 돌린 것⁽¹⁾과는 달리, Aristoteles는 예술의 독자적인 위치를 밝히려고 꾸준히 애썼다⁽²⁾.

“예술은 自然을 모방한다”(ἡ τέλη μιμνῆται τὴν φύσιν)라는 자주 되풀이 되는 Aristoteles의 구절⁽³⁾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가 예술을 自然物의 再現으로 생각한 것 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또 예술과 기술의 구분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에도 “자연에 의한”(κατὰ φύσιν) 것과 “예술(또는 기술)에 의한”(κατὰ τέλην) 것과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는 “불가능한 일도 詩的 효과나 더 좋은 實在인 경우,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見解

* 哲學科 教授

1. *Politeia*, I, 401d “文藝에 있어서의 교육(ἐν μουσικῇ τροφῇ)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旋律과 調和가 精神의 내부에 침잠하여 가장 강하게 그것들을 확립시키기 때문이다”. Platon은 *μουσική*(음악)라는 말로서 오늘날의 文學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cf. R.L. Nettleship, *Lectures on the Republic of Plato* 1897, 1964 p. 108-118) 당시 오늘날의 文學에 해당하는 것에는 명칭이 없었다. *De Arte Poetica* 1447 b 2
2. S.H. Butcher, *Aristotle's theory of poetry and fine art*. 1897. 1951 p. 115
“예술이 종교나 정치의 지배를 벗어나 교육이나 도덕의 增進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정신의 自由롭고 독립된 활동으로서의 藝術의 개념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Aristoteles에서 부터이다”고 Butcher는 말하였다.
3. *de Mundo*, E. 396b12
Physica, B₈, 199a 16-18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또는, 예술)은 자연이 끝낼 수 없는 것을 완성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을 모방한다.” 여기에서는 자연과 기술은 合目的의이지만, “자연의 模寫”가 기술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 때에는 정당화되어야 한다”(4)고 밝힘으로서 예술이 自然의 模寫라는 견해와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과 예술은 많은 점에서 공통되지만, 예술은 “害롭지 않는 기쁨을”(χαρὰν ἀβλαβήν) 제공하여 주는 특색이 있다. 물론 기술도 “즐거움으로”(πρὸς ἡδονήν)(5)인도한다. 그러나 예술이 주는 즐거움은 休息(ἀνάπαυσις)과 유희(παυιδά)에서 오는 기쁨이다.

Platon 에 있어서 模倣技術은 “사물의 本性 속에 있는 하나”(μία ἢ ἐν τῇ φύσει οὐσία)를 모방하여 그것이 制作物이 되고, 그것을 다시 모방하여 예술품이 되는 그런 模倣方式이었는데, (6) Aristoteles 에게 있어 藝術의 모방방식은 “(1) 사물의 과거나 현재의 상대 또는 (2) 사물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생각되는 상태, 그리고 (3) 사물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태”(7)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그의 모방설이 같은 것(ὁμοίωμα)의 생산이 아니고, “사물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태”(ἢ οἷα εἶναι δεεῖ)임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서는 예술이 創造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나아가 Aristoteles 는 이 모방의 성질이 “인간 본성”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모든 사람은 모방된 것에 대하여 기쁨(τὸ χαίρειν)을 느낀다”(8)고 표현함으로써 예술의 快樂說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Aristoteles 는 예술의 독자성을 주장하였으나, 예술은 기술과 더불어 그의 學問體系에 있어서 制作學(ποιητική)에 속하고 있어서(9) 그의 『詩學』은 “制作術 자체에 관하여”(περὶ ποιητικῆς αὐτῆς)이야기를 시작하였다. Aristoteles 에 있어서 技術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理致에 따른 制作能力의 상태”(ἐξέσ μετὰ λόγου ἀληθοῦς ποιητική)인데, 그릇된 이치에 따르면 “無技術”이다. 사람들이 조각가 Pheidias 나 인물조상가 Polykleitos 를 智者(σοφός)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기술이 뛰어나 있고, 또 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10). Aristoteles 가 『니코마코스 倫理學』의 첫 머리에서 밝힌대로 모든 기술에는 목적(τέλος)이 있다. 그런데 “여러가지 목적들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活動(ἐνέργεια)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活動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機能

4. *Poet.*, XXV, 1461 b 9—10, XXIV, 1460 a 26—27

5. *Politica*, Θ₆, 1339 b. 25, 41—42, Θ₇, 1342 a 16

6. *Polit.*, I, 597 b “세가지 종류의 침대가 있다. 사물의 本性 속에 있는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寢臺의 本性이고……다른 하나는 木工이 만든 침대이고, 남은 하나가 畫家가 그린 침대이다.”

7. *Poet.*, XXIV, 1460 b 10—11, 또 IX, 1451 a 38—39 에 의하면 “詩人의 기능은 실지로 일어난 것에 관여하지 않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즉 계연성과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가능한 것에 관여한다”고 한다.

8. *Poet.*, IV, 1448 b 9—10

9. Arist. 는 인간의 지식활동을 “보다”(θεωρεῖν)와 “행하다”(πράττειν)와 “만들다”(ποιεῖν)로 三分하고, 거기에 각각 “理論學”, “實踐學”, “制作學”이 해당되어 學問(ἐπιστήμη)를 이루고 있다고 분류하였다. *Met.* E₂, 1026 b4 抽稿 『희랍 自然哲學者들의 神觀』(『박종홍 박사 환력기념 論文集』1963. 수록) 276面 참고.

10. *Eth. Nic.*, Z₄, 1140 a 10, Z₇, 1141 a 10—12 ff.

(ἔργον)이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11). 가령 도끼가 나무를 찍는 그것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름만의”(ὀμωνόματος) 도끼에 불과하다. 가능태(dynamis)로서의 도끼가 나무를 찍는 일로써 도끼의 현실태(ἐνέργεια)가 완수된다(12). 예술작품은 活動자체 보다는 어떤 機能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기능을 완수하지 못하면 예술작품은 적어도 살아있는(ἐμφυλλος) 작품이 되지 못한다(13).

Aristoteles에 의하면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무엇을 위함”(τὸ ἐνεκα)이 있다(14). 散策하는 것은 건강을 위함이고, 體液의 배설(κάθαρσις)이나 藥의 복용이나 外科的 方편은 건강을 위한 방법이다. 예술작품도 그 목적에 따라 작품의 形相이 결정되고, 質料가 선택되고 작가의 운동(作業)이 시작된다(15). “예술작품에 있어서는 애당초 그 목적인 定義와 本質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가령 집을 짓는 경우 이미 목적이 거기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Aristoteles는 말하였다(16). 자연학자들이 質料因과 目的因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하였지만, 이 目的因은 특수한 필연적인 것(τὸ ἀναγκαῖον)이라고 그는 보았다.

이 필연적인 목적이 예술작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위에서도 인용한 대로 예술은 기쁨을 느끼는 데서 시작한다. 그는 “음악이나 진축 기타 그와 비슷한 것에 기쁜 것(χαίροντες)을 느끼는 것으로서 진보를 가져온다”고도 기술하였다(17). 예술창작의 動機가 모방하는 기쁨이요, 그 목적이 모방된 것에서 얻는 기쁨이다. “우리는 모방된 것에 대하여 그 자체로는 보기 싫은 것도 즐거움으로 이를 관찰한다”(18). 이 즐거움이 예술 일반의 목적인데, 喜劇의 목적은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일종의 과오 또는 추악”(19)에서 오는 기쁨이요, 悲劇은 “가련함과 무서움을 통하여 오는 katharsis”(20)에서 생기는 기쁨이다. 실로 Aristoteles에 있어서 悲劇은 그 자체 dynamis(가능태)에 불과하고, katharsis(순화 또는 배설)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비극이 energeia(현실태)로서 나타낸다. 따라서 悲劇은 katharsis라는 기능을

11. *ibid.*, A₁, 1094 a 1-6

12. *De An.*, B₁, 412 b-413 b 10

13. *Met.* Z₁₁, 1036 b 31-32. “생각컨대 손이 인간의 일부분으로 있는 것은 그 모든 狀態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 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따라서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 만이다. 살아 있지 않은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다.”

14. *De Coelo*, A₄, 271 a 35 “神과 自然은 사용하지 않는 아무 것도 창조하지 않는다.”

15. *Phys.*, B₃, 194 b 33

G. Teichmüller, *Aristotelische Forschungen*. II *Arist. Phil. d. Kunst*. S. 155

16. *ibid.* B₃, 200 a 30-b1 ἢ ἀρχὴ ἀπὸ τοῦ ὀρισμοῦ καὶ τοῦ λόγου, ὡς περ ἐν τοῖς κατὰ τέχνην, ἐπεὶ ἢ οὐκία τοῖόνδε, τὰ δεῖ γίνεσθαι καὶ ὑπάρχειν ἐξ ἀνάγκης

17. *Eth. Nic.*, K₅, 1175 a 34-35

18. *Poet.*, W. 1448 b 10-11

19. *ibid.*, V. 1449 a 33-34

20. *ibid.*, W. 1449 b 27.

위해 설계되는 예술형식이라는 것이 Aristoteles의 개념규정이다(21).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詩가 制作되어야 하는가를 다룬 책이 그의 『詩學』이다. 그 책은 원래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의 秘傳的인 저작(eine esoterische Schrift)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잃어버린 대화록 『詩人論』(περὶ ποιητῶν)과 說得의 양태를 다룬 『修辭學』(τέχνη ῥητορικῆ)와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데, Aristoteles의 制作學에 속하는 이 세계의 논문(22)의 基調語는 technē이다. 『修辭學』은 변론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느냐 하는 이유를 추구하는” 技術이고, (23) 『詩學』은 “가장 완전한 悲劇이 그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는 바의 技術”이다(24). 제작기술은 그의 세계의 학문의 한 체계이니 학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술과 다른 기술과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지만 이 양자의 차이는 예술이 다른 기술과는 달리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은 하나의 생명과도 같이 그에 고유한 즐거움을 산출한다”(ἐχουσαν ὡσπερ ζῶον ἐν ὄλον ποιητὴν οἰκείαν ἡδονήν)(25) 이것이 Aristoteles가 예술의 목적으로 삼는 표어이다. 예술의 제작도 기술이니, 기술의 원칙에 좇아 제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술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특이한 기술이니 그 특이한 기술을 획득하여야 “완전한” 예술이 된다. 모든 예술은 “모방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갖고 있으나, “모방의 양식”이 다른 제작기의 예술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즐거움을 갖고 있어, 그것들을 성취하여야 그 제작기의 예술들이 성공할 수 있다(26). 悲劇의 목적은 katharsis에서 산출되는 즐거움에 있다.

2. 悲劇의 기능으로서의 Katharsis

Aristoteles는 비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비극은 진지하고 완결된 행동의 모방이고 일정한 길이의 모방이다. 예술적 장신의 言語가 作品의 여러 부분에 적절하게 삽입된다. 그리고 비극은 戲曲形式을 취하지 叙述形式을 취하지 않으며, 가련함과 무서움을 통하

21. W. Kommerell, *Lessing und Aristoteles*. 1960 s. 59—60.

22. 『詩學』(XV, 1454 b 18)에 “무대 효과상의 여러 점에 대하여 이미 公刊된 論文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말한 것은 『詩人論』을 가르킨 것인데, 이 책은 『詩學』이전에 기술되었다. 『詩人論』은 공개된 서적으로 “詩人の 특성은 무엇이고, 시인은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시인과 다른 사람의 구별은 무엇이고, 시인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를 문제삼았다고 한다. 『修辭學』은 책 제목이 표시하듯이 “말하는 技術”을 다루었는데, 이 세篇의 논술은 같은 시기에 기술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 論文사이에는 긴밀한 內的 연관성이 있다. Vgl. I. Düring, *Aristoteles*. 1966 s. 118—126

23. *Rhet.*, A₁, 1354 a 9—10

24. *Poet.*, XXIII, 1453 a 22

13章에서 그는 “詩人は 이야기(μῦθος)를 구성함에 있어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피하여야 하는가? 어떤 수단에 의하여 비극의 목적은 달성될 것인가?”(1452 b 28—30)를 문제 삼았다.

25. *ibid.*, XXIII, 1459 a 20—21

26. Arist.가 처음으로 *Poet.*에서 예술의 genre를 다루었다. 그는 媒材와 對象과 樣相의 세계로 나누었다.

여 이 같은 感情의 katharsis가 이루어지는 것이다”(27). Aristoteles는 비극이 다른 예술형식과 다른 점을 지적한 후, 비극의 목적이 “가련함과 무서움을 통하여 이 같은 감정의 katharsis가 이루어지는 데 있다”고 밝혔다.

여기 “예술적 작식의 언어가 作品의 여러 부분에 적절하게 삽입된다”는 말의 뜻을 그는 律動과 諧音과 노래를 포함한 언어가 어떤 때는 韻文만으로, 다른 때는 歌謠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28). 그리고 “진지한”(σπουδαίως) 행동의 모방이라는 말은 “우습광스러운”(γελοία) 행동이나 “천박한”(φάβλη) 행동이 아니고, 진지한 목적, 즉 도덕적인 특성을 시사하는 말로 여겨진다(29). 그 까닭은 “보다 엄숙한 사람들이(οἱ σεμνότεροι) 아름다운 행위와善良的 사람들의 행위를 모방하는 데 반하여 보다 俗된 사람들이(οἱ εὐτελέστεροι) 천박한 사람들의 행위를 모방한다”는 『詩學』 4장의 구절을 아울러 고찰하는 데 기인한다. 그는 전자가 英雄讚歌를 거쳐서 “진지한” 비극으로 발전하였고, 후자가 諷刺詩를 거쳐서 “우습광스러운” 희극으로 발전하였다고 기술하였다(30).

문제는 “가련함과 무서움을 통하여 이같은 감정의 katharsis가 이루어지는 것이다”(ὀδὲ ἐλέου καὶ φόβου περαίνουσα τὴν τῶν τοιούτων παθημάτων κάθαρσιν)의 구절이다. 이 구절을 우리는 이때까지 가장 많이 문제시하였던 G. E. Lessing의 해석에 따라 더듬어 보자. 가련함(ἔλεος)과 무서움(φόβος)의 本性이 무엇인가? 『詩學』 13장에 그가 “가련함은 주인공이 부당하게 불행(δυστυχουντα)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생기고, 무서움은 우리와 비슷한 주인공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생긴다”(31)고 말한 것으로 보아, katharsis條項의 무서움이란 다른 사람에게 휩쓸 불행과 惡이 우리에게도 물려온다고 생각하여서가 아니라, 피해받은 主人公이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는 데서 일어나는 감정일 것이다. Lessing의 『함브르크 劇作評』에서의 해석에 의하면 그 무서움이란 우리들 자체에서 일어나는 가련함이다.”(32) Lessing의 그 같은 해석이 옳은 것인지는 논의를 거듭하면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Aristoteles는 『修辭學』제 2권(B₂, 1282 b 26-27)

27. *ibid.*, VI, 1449 b 24-28

28. *ibid.*, VI 1449 b 28-31.

29. σπουδαίως 라는 말의 올바른 번역은 대단히 힘든데, Butcher는 그것이 “grave and great”라는 두 말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noble”라고 번역한다고 기술하였다. S. H. Butcher, *op. cit.*, p. 241

30. *Poet.*, IV. 1448 b 25-26, 34-37.

“비극이 완결된 일정한 길이의 모방”이라함은 “전체적인 행동의 모방”이라는 뜻인데, “전체 중에는 아무런 크기가 없는 전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한 것이다. (VII 1450 b 25-27)

31. *ibid.*, XIII 1453 a 5-6

32. G. E. Lessing, *Hamburgische Dramaturgie*. 1767-9. Stück 75. W. V. S. 313

Richard III와 Crébillon은 “가련함과 무서움”(Mitleid u. Furcht)을 “가련함과 놀람”(Mitleid u. Schrecken)으로 번역하였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Lessing은 강조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짜기 苦痛이 물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느끼는 우리의 놀라움이란 동정적인 驚愕이어서 그것은 이미 가련함 밑에서 포섭되는 개념이다”(S. 312)고 Lessing은 말하였다.

에서 “가련함”을 설명하여 “우리에게 무서움을 이르는 것, 또는 위협과 어떤 다른 것이 가련함을 이르킨다고 말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는데, Lessing은 이 구절에 따라 “무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이외에 우리의 가련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무서움이 필연적으로 가련함을 포괄한다”고 해석하였다³³⁾. Aristoteles가 ‘δι’ ἐλέω και φόβου’라는 말로써 의도한 것은 인간의 원시적인 感動에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人間愛(Philanthropie)”를 생각하였다고 Lessing은 말하였다³⁴⁾.

‘τῶν τοιούτων παθημάτων’(이 같은 감정의)은 무엇을 뜻하는가? παθημάτων을 παθῶν과 같은 뜻으로 Aristoteles는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修辭學』(B8, 1385 b 13)에서 “가련함과 무서움”과 함께 παθῶ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τούτων을 사용하지 않고 τοιούτων을 사용한 까닭은 무엇인가? Lessing은 “Aristoteles가 가련함이라는 개념으로 그 실제적인 소위 가련함을 뜻하지 않고, 모든 人間愛的인 感情을 알리기 위해 τούτων 아닌 τοιούτων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³⁵⁾. 그러면 τῶν의 二格은 무슨 뜻인가? 二格에는 ① 附加二格(genitivus attributivus)과 ② 目的二格(genitivus objectivus)과 ③ 分離二格(genitivus separativus)이 있다. ‘τῶν τοιούτων παθημάτων’의 二格이 무슨 二格인가는 문장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katharsis의 성격결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Gudemann은 ① 附加二格으로 해석하여 “이 같은 氣分の 純化”라고 번역하면서 “가련함과 무서움의 감정이 純化의 主體”임을 밝혔고, Lessing은 ② 目的二格으로 해석하여 “이 같은 情熱을 위한 純化”라고 번역하면서 “가련함과 무서움의 감정이 純化의 對象”임을 밝혔고, Bernays는 ③ 分離二格으로 해석하여 “이 같은 감정의 排泄”이라고 번역하면서 “觀客이 그 같은 감정으로 부터 離脫함”을 밝혔다³⁶⁾. 이 세개의 해석중에서 어느 것이 적절한 해석이냐를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여기에 가장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것이 목적二格으로 해석하는 Lessing과 분리二格으로 해석하는 Bernays인데, 전자는 katharsis를 純化(Reinigung)으로 해석하니 목적二格으로 읽

33. Lessing, *a. a. O.* 75 St. S. 314

cf. G. Brereton, *Principles of Tragedy*. 1968. Brereton은 가련함은 “어떤 재앙에 희생된 사람에 대한 감정”이니 어려울 것이 없지만, 무서움은 “(재앙에 대한)觀念的인 울타리가 임시로나마 무너져” 場面 안으로 觀客을 끌고가는 肉迫性을 지니는 것으로 그리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서(p. 29) 무서움(fear)은 강한 不安이고, 경악(terror)은 당황한 결과를 자아낸 극단적인 무서움이고, 전율(horror)은 이미 일어난 것을 보고 갑자기 느끼는 무서움을 뜻한다고 해석하였다. 무서움은 충격 이전에 오는 것이고, 경악은 그것이 나타나는 도중에 일어나는 것이고, 전율은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오는 것이라고 구분한 Brereton은 Arist.가 실혹 위와 같은 구분을 하지 않았다 해도 ‘pity and fear’의 그의 Text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pp. 32-33)

34. Lessing, *a. a. O.* 76 St. WV. S. 318.

35. *ibid.*, S. 318.

36. Kommerell, *a. a. O.* S. 265.

cf. E. Schaper, *Prelude to Aesthetics* 1968 pp. 103-4,

A. Gudemann, *ΠΕΡΙ ΠΟΙΗΤΙΚΗΣ*. 1934. “Reinigung von derartigen Gemütsstimungen bewirkend.”

Lessing, *a. a. O.* “blos um diese und dergleichen Leidenschaft”.

였겠고, 후자는 그것을 排泄(Entladung)으로 해석하니 분리二格으로 읽었을 것이다. Lessing은 위와 같은 katharsis 조항의 해석을 압축하여 “이 katharsis(純化)란 감정을 도덕적인 능력으로 變移시키는 것 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³⁷⁾. 이 Lessing의 katharsis 해석에 맞서 J. Bernay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劇理論에 대한 두개의 論文』에서 katharsis란 純化에 대한 하나의 醫學的인 暗喩이고, 신체의 의학적인 효과와 흡사한 精神에 대한 병리학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王의 待醫의 아들이었고, 그 자신이 젊은 시절에 때때로 醫術을 훈련받았던 Aristoteles는 이어받은 의학적인 경향성을 단순히 철학활동의 엄격한 自然科學分野에만 적용시키지 않고, 가늘게 이어 오는 것이기는 하나 그의 心理學的 교설이나 윤리학의 교설 그리고 형이상학과 결부된 모든 교설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전체하면서, “katharsis(排泄)란 말은 단순히 의학적인 냄새 때문에 던져버리지만, 육체적인 질병현상과 강한 心能의 誘發이 병행되는 말이다”고 기술하였다⁽³⁸⁾.

3. Katharsis의 두가지 맞선 해석

katharsis라는 비극의 기능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논의는 지난 3세기 동안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단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前節에서 언급한 바 있는대로 이 논의는 대체로 불란서의 Corneille나 Racine⁽³⁹⁾같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katharsis를 “도덕적인 순화”(moralische Reinigung)으로 해석하는 Lessing의 견해와, 루넝쌍스의 이텔리 평론가들의 感情淘瀉說의 의견에 좇아 “의학적인 배출”(medizinische Entladung)로 해석하는 Weil⁽⁴⁰⁾나 Bernays의 견해가 맞서고 있다.

katharsis라는 말은 원래 ① 도덕적인 의미로서의 purificatio(순화)라는 뜻과, ②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lustratio(깨끗케 함), 또는 expiatio(속제)라는 뜻과, ③ 의학적인 의미로서의 purgatio(배설)라는 뜻이 있는 말인데, 때때로 복합적인 경우로도 사용되었다. Aristoteles 자신이 『詩學』의 이 katharsis 조항에서 어느 의미로 사용했겠는가 문제가 초점이다.

①의 도덕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그의 『修辭學』 2권 9장(1386 b 9-14)과의 연관에서이다. 즉 “가련함의 감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것은 노여움(νέμεσος)이다. 이 두 감정

37. Lessing, *a. a. O.* St. 78 s. 329.

38. J. Bernays, *Zwei Abhandlungen über die aristotelische Theorie des Drama.* 1880 S. 14—16.

39. cf. S. H. Butcher, *op. cit.*, pp. 243—4

P. Corneille, *trios discours.* Racine, *Phèdre*

40. J. E. Springer, *A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in the Renaissance* 1908 p. 174

H. Weil, *Über die Wirkung der Tragödie nach Aristoteles.* (1847년 Basel에서 개최된 제10회 독일 言語學會의 會報에 수록되었음) Weil의 이론은 Bernays보다 이전에 기록되었다.

은 善한 도덕적 감정과 결부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부당한 苦惱에 대한 同情과 가련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부당한 변영에는 노여움을 느끼게 된다”고 그가 기술하였는데, 이 구절은 “가련함과 무서움을 통하여 이 같은 감정의 katharsis”라는 텍스트 해석이 “도덕적 감정의 katharsis”로 해석될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보다 앞서 Aristoteles는 “노여움이나 신뢰 같은 어떤 용맹스러운 감정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숙고 없는 無禮한 氣質의 사람들이나, 또는 몹씨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가련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양 극단의 사이에 있는 사람만이 가련함을 느낀다”(41)고 말하였는데, 그는 그의 中庸(μεσότης)(42)를 위해 “가련함과 무서움의 katharsis”를 생각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②의 종교적인 해석은 ①의 도덕적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ristoteles는 종교적인 “恍惚”(ἔκστασις)의 현상과 희랍인들이 “熱狂”(ἐθουσιασμός)의 종교적인 분위기에 주목한 바 있다(43). Empedokles는 樂園追放의 종교시 “Κάθαρμοι”에서 “(구원의) 길이 어디에서 얻어지는가”(ἔπη πρὸς κέρδος ἀταρπός)를 묻고 있는데, 분명히 이때의 katharmos(洗淨)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44), 또 Aristoteles의 katharsis 조항과 비슷한 글귀가 있는 Platon의 Phaidon 69 c 에도 katharsis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眞實은 실제 그 같은 감정의 어떤 純化(κάθαρσις τις τῶν τοιούτων πάντων)이고, 그리고 절제 정의 용기 그리고 지혜 자체는 이 洗淨(καθαρός)의 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위해 모든 神秘的 禮拜를 창설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Phaidon에 기록되어 있는데(45), “그 같은 감정”이란 그 문장 앞에 나온 즐거움과 고통 그리고 무서움을 뜻한 점으로 보아 Platon과 Aristoteles의 문장상의 근사점 때문에 katharsis 조항을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③의 의학적 해석의 근거는 Pythagoras 학파와 Hippokrates가 이 말을 의학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Aristoteles 자신이 의술의 훈련을 받았다는 점이다. 즉 Pythagoras 학파는 “의술을 통한 육체의 淨化”(καθάρει τοῦ σώματος διὰ τῆς ἰατρικῆς)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Hippokrates는 katharsis를 “고통스러운 요소의 제거”(ἀπόκρισις τῶν καταμνηνίων)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46). 그리고 Aristoteles의 『詩學』(1445 b 15)도(바닷물에 의한)

41. *Rhet.*, B₈, 1385 b 30—34

42. cf. *Eth. Nic.*, B₉, 1109 a 20—b 27

43. *Politeia*, Θ₇, 1341 b 33—40

44. Diels, *Vors.* I. 31 Emp. B 112

45. Platon은 *Soph.* (230c)에서는 katharsis를 의학적인 暗喩로 사용하고 있다. 즉 “論駁(ἔλεγχος)는 katharsis의 한 양상이다”고 하는데, “지식이 주어지기 전에 내적 장애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Krat.* (405a)에서는 의사들과 요술사들을 ἡ κάθαρσις καὶ οἱ καθαρμοί라고 칭하고 있고, *Timaios* (89 b—c)에서도 淨化藥劑(φαρμακευτικὴ κάθαρσις)를 말하고 있으나 적어도 *Phaidon*篇에서는 종교적인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46. *ibid.*, I (s. 468) 58 *Pythag.* (Aristoxenes의 報告)

Hippok., *coll. de gener. anim.* 3 c p. 750 b 5

“洗淨를 통한 구제”(ἡ σωτηρία διὰ τῆς καθάρσεως)를 말하였는데, 이것들은 다 이 말의 의학적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상의 katharsis의 세가지 語義와 해석 가능성의 문제를 놓고 어느것을 택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를 숙고해야한다. Aristoteles가 그의 『政治學』에서는 katharsis를 어떻게 사용하였던가? 그는 제 8권의 音樂論(Θ₇, 1341 b 33-40)에서 음악의 旋律에는 倫理的인(ἠθικός)것과 行動的인(πρακτικός) 것과 熱狂的인(ἐθουσιαστικός)것의 세가지 선율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들은 제각기의 目的에 상응한다. 그 目的이란 ① 교육적인 觀點(παίδειας ἕνεκεν)과 ② 休息과 娛樂을 위한 觀點(καθάρσεως ἕνεκεν)으로 나뉜다(47). 그리하여 Aristoteles는 윤리적인 선율은 ①의 교육적인 觀點에 의한 것이고, 행동적인 선율과 열광적인 선율은 ②의 휴식과 오락을 위한 觀點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즉 그는 『政治學』의 위의 대목에 이어(1342 a 1-7)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교육에 있어서는 대개 倫理的인 양식이 즐겨 채택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演奏를 듣는 일에 있어서는 行動과 情熱의 양식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가련함과 무서움 같은 감정, 나아가 熱狂과 같은 감정들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정도의 차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宗教的 感動에 빠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神秘的인 선율의 효과로서 마치 醫術의 치료나 몸의 清潔을 받는 것 같이 平靜에 돌아간다. 가련함과 무서움에 의하여 감동되는 사람과 모든 감정적인 사람들은 각기 강열한 감정에 휩쓸리는 한, 같은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종의 katharsis를 받아 마음이 가볍게 되고,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그 같은 방식으로 여러가지 katharsis적인 선율도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는 기쁨을 준다”고.

“神秘的인 선율로 부터”(ἐκ τῶν ἱερῶν μελῶν) 사람들의 마음은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平靜에 돌아간다”(καθισταμένους). 이 선율에서 잠재되었던 “가련함과 무서움”이 추방될 것이다. 정열이 소모되었을 때 일어나는 平靜에서 “해롭지 않는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의 효과이지만, 悲劇의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Aristoteles의 이 음악론과 더불어 katharsis를 의학적인 의미의 類似療法(Homöopathie)으로 해석한 Bernays 이후에 S. H. Butcher, L. E. Spingarn, A. Rostagni 등 현재의 해설자들이 이 말을 “purgation”(Entladung)

47. “우리는 더 나아가 음악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즉 教育的인 觀點과 katharsis의 觀點이 그것이다. 따라서 음악은 知的 즐거움, 즉 노력 후의 休息과 娛樂을 위해서 있다”(1341 b 35-40)의 이 부분의 해석은 구구하다. 즉 Susémihl (Pol., Susemihl and Hicks pp. 638 ff)은 “katharsis는 음악의 별개의 목적이 아니고 오락이나 휴식의 수단이다”고 해석함으로써 음악을 두개의 觀點에서 나누고 있으나, Zeller(Phll. d. Gr.)나 Butcher (op. cit., p. 249)는 Pol. Θ₆, 1339 b 11 과 더불어 후식(πρὸς ἀνάπαυσιν)과 오락(πρὸς διαγωγήν)과를 첨부한 4개의 觀點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필자는 전자의 두개의 해석을 좇았다. 그 이유는 뒤의 문장과의 文脈 때문이다.

으로 번역하고 있다(48). 그러나 위의 문장(1342 a 1-7)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반드시 의학적인 개념으로 고정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Lessing의 주장도 그러하지만, Porphyrus의 영국출판의 텍스트에서 Gale이 註釋한 것 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즉 Gale은 “熱狂을 淨化나 治療로 우선적으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까닭도 없다. 왜냐하면 그 시초와 그 과정에서 보면 熱狂은 철두철미 神的인 것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49). 그러기 때문에 “purification”(Reinigung)의 古典的인 번역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현황이다. 종교적인 入神에서 신체적인 淨化의 치료도 얻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있는 일인데, 당시 희랍의 醫術과 종교와의 관계로 보아 katharsis의 개념은 양자의 깊은 연관에서 온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 Katharsis의 美學的 해석

katharsis를 의학적으로만 해석할 수도 없고, 도덕 및 종교적으로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Pythagoras 학파의 의학적인 katharsis의 개념 속에도 半宗教的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고, Orpheus 敎의 종교적인 katharsis의 개념에도 半醫學的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짐작이 간다(50). 의학적인 ‘排泄’이 단지 泄瀉와 같은 것으로 생각될 수는 없다. 排出된 有機體는 언제나 정신적인 純化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하고, 종교적인 ‘純化’도 어느 경우에는 化學的인 변화가 내포된 暗喩的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51). 예술의 독자성을 강조한 Aristoteles는 그의 悲劇定義에서 사용한 katharsis라는 개념을 역시 어느 일방의 뜻으로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두 개념을 止揚시켜 高次的인 의미, 즉 미학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Aristoteles의 悲劇論은 Platon의 悲劇排斥論에 맞서 오히려 悲劇의 기능을 역설하려는 데 있었다. Platon은 비극을 비난하면서 “詩人들이 조장하고 만족시켰던 것은 개인적인 不幸속에 강하게 억제되었던 바로 그 것인데, 억눌렸던 사람들은 본래 갈망했던 것, 즉 눈물과 담겼던 울음을 터뜨려서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共同體가 모든 경우에 최선이라고 칭

48. Spingarn, *op. cit.*, (pp. 74-75) “the proper purgation of these emotions”라고 번역하고 있고, A. Rostagni, *Aristoteles poetica* 1945. (p. 77) “the exercise of terror and commiseration purges the mind of these very passions”라고 번역하였다.

49. Bernays, *a. a. O.* S. 55.

50. *Vors.* I (s. 468) Pythag. D 1 “음악을 통한 精神의 純化”(κάθαρσις ψυχῆς διὰ τῆς μουσικῆς) *Vors.* I (s. 7) Orph. B. 5 “禮拜를 통한 惡行의 洗淨”(καθρμοὶ ἀδικημάτων διὰ θυσίων)

51. H. House, *Aristotle's Poetics* 1956 p. 105 “katharsis를 의학적으로 소잡하게 해석하는 흐름은 purgation이라는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설사약의 服用으로 滯症을 고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유래하였다”고 House는 지적하였다. cf. Schaper, *op. cit.*, p. 105

찬했던. 法이나 理性的인 생각 대신에 즐거움과 고통(*ἡδονή καὶ λύπη*)이 너의 나라의 王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였다⁽⁵²⁾. Platon도 "본래 갈망했던 것"(*φύσε δὲ ἐπιθυμεῖν*)을 울음을 더 뜨려서 "만족한다"(*χραίρον*)는 katharsis의 효과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것이 "理性이나 人倫에 의하여 교육되지 않고", 고통이나 즐거움 같은 官能에 의하여 대치되는 경향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Aristoteles는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던 "가련함과 무서움"의 감정이 悲劇에 의하여 "그 같은 감정의 katharsis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⁵³⁾. 그것은 悲劇構成에 있어 "맺음"(*δέσμις*)이 "풀림"(*λύσις*)을 얻어⁽⁵⁴⁾ 이루어지는 "고유한 기쁨"이다. Aristoteles에게 있어서 비극은 "해롭지 않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인간의 공동체의 필수물이었다. 그 점에서 그는 katharsis의 개념을 悲劇 定義에 등장시켰던 것이다.

Aristoteles는 많은 새 말을 만들었다. 즉 본질(*τὸ τί ἦν εἶναι*), 個物(*τόδε τι*) 基體(*ὑποκείμενον*), 完成態(*ἐντελέχεια*), 有機體(*ὀργανικός*) 등이 다 그의 新造語이다. 종래 사용하던 말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안타가움과, 보다 적극적인 概念創造에서 불가피하게 새 말을 만들었던 것이다. katharsis의 경우는 물론 이 때 까지 사용되던 말이기 는 했으나, 그는 이 말에 새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ὄργανον*(器官)을 가추있는 것을 생물학에서 *ὀργανικός*(有機體)라는 말로 轉用시킨 것과 흡사한 것이었다⁽⁵⁵⁾. 그리하여 Aristoteles는 katharsis라는 말을 美學的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말을 醫學的인 개념으로도, 종교적인 개념으로도, 또한 심리학적 개념이나 교육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즉 예술적인 감정에 해당하는 용어로 그것을 사용하였다는 말이다.

Aristoteles의 悲劇論에서의 katharsis를 예술적인 의미로 해석한 몇몇 사람들이 있다. G. F. Else는 "아리스토텔레스의 悲劇美"라는 논문에서 "[詩學]의 katharsis는 원래 心理的인 과정이라기 보다는 藝術的인 과정이다"고 선포하였다. 그는 katharsis를 한 觀客 속에 일어나는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술작품 속에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해석하였다. 觀客에게 그 같은 감정이 일어난다면, 단지 그것은 "과생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katharsis란 비극을 볼 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비극적인 행동에서 표현된 感情이나 情緒를 말한다

52. *Politeia* I, 606 a—b 607a

53. trans. by H. Fyfe, *Poetics*. (Loeb Ed.) Introd. pp. XIII—XIV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Arist.는 완고한 생각을 가진 Platon의 躊躇感에 봉착하였다. 물론 감정은 육체 분별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감정을 사실로서 받아드리고 예술을 감정의 醫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일은 아테나이 사람들이 매일 극장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경서적인 痼疾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일년에 두번 규칙적으로 이 排泄을 행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굳어지고 위축되었을 감정들이 강하게 휘저어져서 안전하게 증발이 되었다."

54. *Poet.*, XVIII 1445 b 24—34

"모든 비극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맺음이고, 다른 하나는 풀림이다." 맺음이란 "행동의 시작부터 행운 또는 불행으로 전환하기 직전까지의 부분"을 뜻하고, 풀림이란 "전환의 시작 부터 끝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55. *De An.*, B₁, 412 b 1

는 것이다. “그 까닭은 실제 Aristoteles 는 관객의 마음의 주관적인 상태에 관심이 없었고, 비극의 客觀的인 目的에 관심이 있다. 作品은 그 作品의 특성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이 목적은 어떤 것 속에 기뒀어 있어야한다. 悲劇의 制作은 관객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彫刻된 像은 보여지기 위하여 제작되었고, 한 曲의 音樂은 들려지기 위하여 制作되었다. 그러나 悲劇은 個性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결점이 많은 개개의 관객을 반드시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詩學』에는 관객이 한 사람으로 現前되는 것이 아니라 한 理想的인 목표로서 나타나 있고, 관객은 작품이 목적으로 삼는 어떤 고정된 照會點이다.”(56)고 진술하였다.

Else의 展開는 “고통스러운 감정”(παθητικός)이 먼저 관객 속에 이루어지고, 다음에(의학적)淨化, 또는 (종교적)純化를 통하여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서 받은 감정은 이미 純化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한 비극작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으로 향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Else는 “이상적인 관객이란 情熱에서 구제되기를 바라는 『政治學』(1342 a 12) 속의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다. 구제를 주는 것이 비극의 참된 기능이 아니다. 가련함과 무서움은 觀客의 마음을 파먹어 들어가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現實 속에서 먼저 들어갔다 다시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련함과 무서움은 美와 韻律과 완전히 합치됨으로서 그것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純化된다.”(57)고 기술하였다.

Else의 katharsis 해석의 기원은 Goethe에게 거슬러 올라간다. Goethe는 그의 『아리스토텔레스의 詩學 補遺』에서 katharsis 조항을 “悲劇이란 가련함과 무서움의 事件을 다룬 후, 그 같은 감정의 和解로서 그 業務가 완성된 행동의 모방이다”고 번역한 다음, “Aristoteles는 katharsis를 모든 희곡, 실로 모든 詩의 作品에 의하여 요구되었던 和解의 성취라고 이해하였다”고 해설한 바 있다(58). H. Otte는 katharsis가 관객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作品 속에서 이룬다는 견해를 더욱 밀고나가 katharsis 조항을 “가련함과 무서움을 통하여 그 같은 事件의 純化가 이루어진다”고 번역하고, “劇적으로 上演된 事件의 純化”라고 읽었다(59). Goethe, Otte, Else 등의 예술적 構造로서의 katharsis 이해를 지지하고 있는 E. Schaper는 “내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56. G. F. Else, Aristotle on the Beauty of Tragedy. *Harvard Studies*, 1938, pp. 199-200

57. *ibid.* pp. 200-201.

58. Goethe, *Nachlese zu Aristoteles' Poetik* 1826 H. G. A. S. 342-5.

“Die Tragödie ist die Nachahmung……nach einem Verlauf aber von Mitleid und Furcht, mit Ausgleichung solcher Leidenschaften ihr Geschäft abschliesst”가 그의 번역 원문이다. M. Kommerell은 Goethe의 해석을 “엄청난 잘못”이라고 말하였다 (a. a. O. S. 61).

59. H. Otte, *Neue Beiträge zur Aristotelischen Begriffsbestimmung der Tragödie* 1928, S. 10 *Kennt Aristoteles die sogenannte tragische Katharsis?* 1912에서 그는 katharsis條項中の παθημάτων이라는 말은 원래 μαθημάτων이라고 기록되었던 것을 수정한 것이어서 오히려 πραγμάτων이라고 개정하여야 할 것인데 μισὰ πράγματα(더럽혀진 행동), 즉 非道德的인 개념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기능적 또는 구조적인 用語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이것(katharsis)을 생각하려는 것은 非 Aristoteles 的이라는 점이다. ……katharsis는 구조적인 용어, 즉 예술의 용어로 이해하여야 한다”(60)고 강조하였다.

이 해석들의 難點은 비극의 “觀客 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이다. Else는 觀客에게 “이 같은 감정이 派生的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katharsis의 美學的 해석을 강조하는 데서 생기는 무리한 이론전개로 생각된다. 그러나 Aristoteles가 藝術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점으로 보아 그 같은 美學的 이해가 타당한 이론이라 하겠다. 만일 이 이론이 타당하다면 위에서 제기되었던 “이 같은 감정의”의 二格해석의 문제는 자연 소멸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katharsis가 비극에서 유발되는 觀客의 감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觀客 속에 일어나는 이 같은 감정”도 무시하지 않는 限에 있어서 katharsis의 이 “美學的 이해”가 Aristoteles 자신에 卽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가 katharsis의 미학적 해석을 주장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즉 Aristoteles가 悲劇論에서 택한 katharsis의 개념은 그가 『詩學』 21장(1457 b 9)에서 설명한 “類推에 의한 暗喩”(ἡ μεταφορά κατὰ τὸ ἀνάλογον)인 것이 분명하다. 類推에 의한 暗喩란 “잔(b)이 酒神 Dionysos(a)에 대한 관계는 방패(d)가 戰爭의 神 Arēs(c)에 대한 관계와 같다”는 경우를 말하는 데, 悲劇論의 katharsis는 다음과 같은 類推에 의한 暗喩라 하겠다. 즉 ①“비극의 기능으로서의 katharsis(b)가 悲劇(a)에 대한 관계는 종교적 純化로서의 katharsis(d)가 宗教(c)에 대한 관계와 같다” 또는 ②“비극의 기능으로서의 katharsis(b)가 悲劇(a)에 대한 관계는 의학적 排泄로서의 katharsis(d)가 醫術(c)에 대한 관계와 같다”는 두개의 類推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의 ①의 종교적 純化로서의 katharsis(d)와 ②의 의학적 排泄로서의 katharsis(d)가 同音異義語(ὁμώνυμα)⁽⁶¹⁾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때껏 해석상의 혼란이 일어났으나, 문제는 이 katharsis(d)가 아니고, 비극의 기능으로서의 katharsis(b)에 있다. 이 “비극의 기능으로서의 katharsis(b)”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로서의 katharsis의 暗喩도 아니고, 또 단순히 의학적 의미로서의 katharsis의 暗喩도 아닌 兩者가 綜合止揚된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美學的 變移를 위한 辨證法的 종합을 이룬 개념이라 하겠다.

60. Schaper, *op. cit.*, p. 107

61. 拙稿 “Aristoteles와 形而上學의 문제”(『哲學研究』 제 4집 1969수록) 77面 참고